힘내라 광주 전남
유·무선통신공사 부문
전기·포장·시설물 부문
지역민과 함께하는 기업
주식회사 국민

전남매일
www.jndn.com
2020년 7월 6일 월요일
창간일 1989년 6월 29일
제8414호 대표전화 (062)720-1000

광주스타기업 남양조명공업㈜이
㈜리치룩스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RICHLUX (주)리치룩스
www.richlux.kr / 062-224-3333

광주발 집단감염 확산세 심상찮다

광주 전방위 발현 9일새 77명 확진…초등생 첫 감염

전남도 초비상…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차단 총력전

광주·전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관련기사 2·6·20면

요양원·교회 등을 중심으로 2차 유행이 본격화된 광주에서 첫 초등학생 감염이 확인되는 등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동일생활권인 전남에서도 확진이 잇따르면서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다.

광주·전남 모두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다양한데다 동선도 넓어 폭발적 증가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전남도는 6일부터 방역단계를 '생활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고, 광주시도 대응 3단계 격상을 고려하는 등 확산세 차단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5일 광주시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광주 누적 확진자는 110명으로 집계됐다. 북구 오치동 70대 여성(109번)과 서구 동천동 70대 여성(110번) 등 2명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27일 이후 9일간에만 모두 77명이 새로 감염됐다. 날짜별로 6월 27일 4명, 28일 4명, 29일 3명, 30일 12명, 7월 1일 22명, 2일 6명, 3일 8명, 4일 16명을 기록했다.

감염 경로는 금양오피스텔 관련 28명, 광주사랑교회 15명, 일곡중앙교회 14명, 아가페실버센터 7명, 광륵사 6명, 한울요양원 5명, 해외 유입 2명 등이다.

연령대별로는 10대 1명, 20대 2명, 30대 6명, 40대 7명, 50대 20명, 60대 24명, 70대 13명, 80대 1명, 90대 3명이다. 확진자 77명 중 60대 이상이 53%(41명)를 차지하고 있고, 무증상자도 44%(34명)에 이른다.

방문 판매 관계자들이 들락거린 금양오피스텔 관련 감염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이틀 사이에는 일곡중앙교회 신도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14명 중에는 일동초등학교 3학년 학생 1명도 포함됐다. 광주에서 초등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등생 확진자가 나오면서 광주시교육청은 일동초등학교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2주간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북구 전체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고3 학생을 제외하고 오는 12일까지 등교 중지와 함께 원격수업을 실시토록 했다.

광주시는 현재 감염 경로와 추가 접촉자를 찾아 지역사회 확산세를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유흥업소와 PC방 등 13곳에 이어 학원, 종교시설, 밀집도가 높은 지하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했다. 학원은 원생 수에 상관없이 모든 학원을 대상으로 확대했고, 사찰과 교회 등 종교시설도 고위험시설에 모두 포함했다. 이들 시설은 15일까지 집합제한 행정조치에 따라 시설 운영을 자제해야 한다. 7일부터는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다.

시는 또 사흘 이상 연속해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될 때 방역 대응 체계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병상은 전남·북의 지원을 받아 국가치료 병상 28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104개를 확보했다. 현재 53개가 남아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의사 7명, 간호사 30명을 광주에 파견하기로 했다.

광주발 집단감염은 동일생활권인 전남으로도 급속 확산하는 분위기다.

전남에서는 지난 4일 확진자 2명이 잇따라 발생해 전남 26번, 27번 확진자로 등록됐고, 전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와 전남은 공동생활권"이라며 "광주 집단감염이 전남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양 시도 방역당국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광주전남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골프장 캐디 피격 총탄, 군부대 유탄 맞다 ▶7면

줄잇는 선별진료소 광주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5일 오전 휴일인데도 광주시 북구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김태규 기자

정 총리 "광주시민, 위기극복 모범사례 만들 것"

광주서 중대본회의 주재…시, 의료원 설립 등 요청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코로나19가 광주에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병상 확보 및 의료인력 등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 재난대책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확산 상황과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인식돼오던 광주에서 며칠 새 50여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확진자 증가에 따라 광주시가 곧바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것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광주지역의 모든 기관과 단체가 원팀이 돼서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해주기 바란다"면서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이 취약한 장소의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광주시민들께서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겨 위기극복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 앞서 이용섭 시장은 정 총리를 따로 만나 광주의료원 설립, 정부 주도의 군공항 이전 추진, 인공지능 시범도시 조성 지원 등 지역현안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광주의료원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오전 광주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또 "군 공항 이전에 국방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에 총리실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박지원 국정원장·서훈 안보실장·이인영 통일장관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차기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통일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관련기사 3면

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교체하고 후임에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했다. 정의용 실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기용됐다.

안보라인의 대대적인 개편 인사로,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인적 교체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박지원

서훈

이인영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는 2000년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서훈 안보실장 내정자는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행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

문 대통령이 장관급 이상 자리에 야당 인사를 발탁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인영 통일 장관 후보자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초대의장을 지낸 80년대 학생운동권의 상징으로 민주당 최고위원과 원내대표를 지냈다.

임종석 특보는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서울=강병운 기자

전남매일 일자리 연중 캠페인

단단한 청년
든든한 광산
더 나은 미래

광산구 청년 활력프로젝트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이 행복한 광산구를 만들기 위해
광산구는 청년들에게 자유로운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NEET 청년 대상 특화 지원정책인 청년 활력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내 삶이 행복한 광산
매력·활력·품격